

제 19 호 2017년 하반기
(2017. 7. 1.~ 2017. 12. 31.)

의정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구민 복리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6 의원 현황 및 정수
- 07 복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8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주요 의정활동
제168회 임시회
제169회 임시회
제170회 제2차 정례회
-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9 현장속으로
- 23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 30 2017년 하반기 포토 의정
- 43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표지설명 | 쇠부리체육센터

발행일 | 2017년 하반기 제19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복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복구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3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 발간사



북구의회는 구정현안에 투명한 검증과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열린의회,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정복금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요?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기에, 낡은 것은 사라지고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과 더불어 사회적인 신뢰가 회복되고,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하는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새해에는 상식이 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선해나가며, 변화와 성장 속에 우리 북구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스무살의 성년이 된다는 것은 조금은 미숙하고 서툴렀던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더욱 더 성장해야 하는 전환점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켜보니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지만,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 가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주민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늘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의회가 먼저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구정현안에 투명한 검증과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열린의회, 정책의 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남은 임기동안 구민만을 생각하는 초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회 전문성 강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 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북구의회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성장 동력의 육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지속 추진, 강동권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로의 재도약 등 당면한 현안들도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올 한해도 구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민심의 참뜻을 올바로 대변해 나가는 열린의회, 소통하는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 때로는 따가운 질책이 성장하는 북구의회를 만들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북구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복금

의원현황 및 정수

제6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장

성명 정복금
연락처 010-3446-2002
선거구 비례대표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성명 강진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명 윤치용
연락처 010-2299-7321
선거구 농소2·3동
※임기 : 2014. 7. 1. ~ 2017. 12. 22.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안승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북구로 가꾸겠습니다.”



의원

성명 이상욱
연락처 010-5535-236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여가와 문화가 풍성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이수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2·3동

“주민이 행복한 사람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성명 백현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건강하고 활기찬 북구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 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 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의회 조직





2017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회기운영 현황 (2017. 7. 1. ~ 12. 31.)

구 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17년 하반기	3	49	2	16	1	33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68회 (2017.9.5.~9.18.)	14	28	1	0	19	1	0	0	1	3	3
제169회 (2017.10.18.~10.19.)	2	6	0	0	0	1	0	0	0	0	5
제170회 (2017.11.20.~12.22.)	33	35	3	0	22	0	1	0	1	4	4
합 계	49	69	4	0	41	2	1	0	2	7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8회 | 임시회

2017. 9. 5. ~ 9. 18. (14일간)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9월 5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복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계획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강진희 부의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라’라는 주제로, 윤치용 운영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안승찬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울산 북구청의 계획 및 복구 체육회 운영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구정 질문을 하였다. 제168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 했으며, 울산광역시 복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을 심의했다.



의 | 정 | 활 | 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69회 | 임시회

2017. 10. 18. ~ 10. 19. (2일간)

정복금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0월 18일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오는 11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쇠부리체육센터의 시설물 현황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마을 진입도로 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동 대안마을 피해현장의 복구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최종결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백현조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반면 안승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복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을 심의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0회 |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 12. 22. (33일간)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복금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큰 틀의 정책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 대한 배려와 변화하는 복구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백현조 의원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이상육 의원은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믿음과 신뢰로 거듭나는 북구의회가 되기 바라며’라는 주제로, 안승찬 의원은 ‘포항지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진희 의원은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대안 모색을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또한 이수선 의원은 ‘농소2동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구정 질문을 하였으며, 이수선 의원이 제안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12월 2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168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 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의 시비 지원이 인상됨에 따라,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순직군경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하여 참전·유족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복지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명예구민증 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및 수여대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복지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 추가 및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제169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원안가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 ▶ 심의보류**
 ※ 직영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운영 형태로 변경하여 전문성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대에 보다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꾀하고자 함.

제170회 |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8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받하고자 함.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
-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이수선 의원]
※ 유료도로법 중 통합채산제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무료화 하며,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결의함.
- **울산광역시 복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욱 의원]
※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지급하여 국가 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관한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백현조 의원]

※ 학교 및 지역 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도시개발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자 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목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2017. 11. 21. ~ 11. 29.(9일간)

| 감사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5	15	70
공 통 사 항	1	1	-
기획홍보실	5	1	4
행정지원국	28	5	23
복지경제국	23	3	20
건설도시국	23	5	18
보 건 소	4	-	4
의회사무과	1	-	1





강진희 부의장

각종 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홍보물 및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하게 되었는데, 구청 홈페이지, 실과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살펴보면 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편중된 그림들이 많음. 향후 인쇄물 및 동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사업 추진 시 사전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활성화 제고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체험·홍보 부스의 다양화 등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었음. 남녀노소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나눔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거듭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연 학습의 장으로 활용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가족 중심 커뮤니티 및 친환경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무·그물놀이터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공간임. 좀 더 확대하여 주변의 동천강, 순금산 등 자연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 학습의 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달천철장 주변 정비사업 조속한 추진

달천철장 정비사업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철기문화의 원류인 시 지정문화재 달천철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비사업인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

지역 문화재의 홍보물 제작 및 지속적인 관리

중산동 고분, 관문성, 어물동마래여래좌상 등 지역문화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복구를 안내하는 책자의 내용도 미흡함. 지역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강동산하지구 강동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 추진

강동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 인도는 있지만 주변 장애물이 많고 안전휀스는 안전도로가 없어 유명무실함.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저류지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윤치용 운영위원장



안승찬 의원



행정사무감사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이상육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위원이 되면 사업 자체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어 그 지역 실정을 모르면 사업 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동 지역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후 편성된 예산도 지역을 위해 집행되니 책임감도 가지도록 방향 설정하여 주기 바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확대 실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점검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 되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에 기여하였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안전 점검 하도록 대상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이수선 의원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TX) 노선 신설 추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구간을 연계하는 준고속열차(TX) 운영을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주기 바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신설되는 송정역(가칭) 일대를 울산 동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와 전통,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칭 송정역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통합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 현재 이원화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주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백현조 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활용 추진

타 자치단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점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하여 향후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금연 환경 조성 철저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미흡함.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금연 상담 교실을 운영하여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주기 바람.

현 | 장 | 속 | 으 | 로



강동 정자 해변 환경정화 활동 및 군부대 장병 위문 방문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7월 11일 오전 강동 정자해변을 방문하여 해변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 기간을 대비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북구를 찾는 피서객 및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추진된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서 7명의 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환경정화 활동 직후 북구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7765부대 2대대 신명중대 장병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더위 속에서도 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위문 방문은 해안 경계의 최전선에서 밤낮 구분 없이 초소 근무를 서는 장병들을 위해 특별히 대대본부를 방문하지 않고 해안초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위문품으로 수박, 다과류 등을 전달하며 신명중대 장병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참석한 의원들은 “다가오는 무더위를 맞이하여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는 기관을 위문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해당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북구의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 장 | 속 | 으 | 로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장체험 봉사활동

북구의회(의장 정복금)는 9월 14일 오후 북구 상안동에 위치한 아나울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장 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아나울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체험 봉사활동에는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작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자동차 부품관련 작업 등의 일을 체험했다.

한편, 정복금 의장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통해 큰 틀에서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 장 | 속 | 으 | 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9월 27일 오후 관내 복지시설인 지체장애인지립센터 착한목자의 집 및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심터를 방문하여, 생필품 및 과일 등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현 | 장 | 속 | 으 | 로



쇠부리체육센터 시설현황 및 수해복구 현장 점검

정복금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0월 18일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11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쇠부리체육센터의 시설물 현황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마을 진입도로 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동 대안마을 피해현장의 복구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정복금 의장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쇠부리체육센터의 준공은 단순히 문화체육시설 건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초석을 다지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크다.”라며, “정식개관에 앞서 모든 시설물을 재차 점검하고, 운영 시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의·안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 > 의 결 일 :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 > 결의요지 :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가. 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벌써 50년에 가깝게 되었고, 누적이익 1,762억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244.9%로 유료도로법상으로 위법적 행위이며, 상습적인 정체 등으로 고속도로 기능도 상실한 상태임.

나. 국회는 유료도로법 중 통합채산제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 하고 무료화하며,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결의함.

■ 주문

울산과 안양간의 울산고속도로는 지난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69년 말에 유료도로로 건설해 개통되었고 이후 1974년 11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받아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에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추진되었으나 10년이 넘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지만,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개통된 지 벌써 50년에 가깝게 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통행료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수익은 3,443억원이고 총 비용은 1,681억원이며 이에 따른 총 누적이익은 무려 1,762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울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순수 건설투자액 720억을 제외하고,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1천 42억원을 더 걷어들였다. 전국 27개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 투자비를 넘어 회수율 100%를 초과한 곳은 도합 4개 노선이고 이 4개 노선 가운데 울산고속도로의 회수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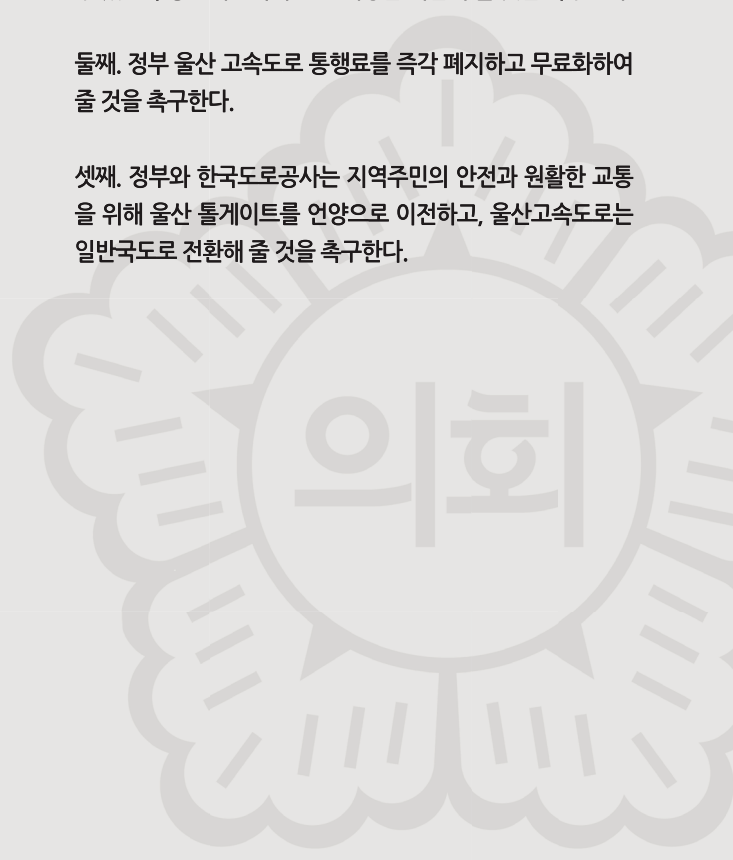
244.9%로 회수율로 따졌을 때,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통합채산제라는 조항을 들어 지난 수십 년간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걷고 있다. 이 통합채산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다. 현재 울산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협소하여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단순히 안양 등 서부권 과 울산을 연결하는 지방도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또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고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선확대나 도로 선형구조 개선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울산 핵심 동서 축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유료도로법 취지에 맞게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 이내 통행료 수납의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채산제에 관한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울산 톨게이트를 안양으로 이전하고, 울산고속도로는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구.정.질.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질문의원 : 안승찬 의원
- > 질문일시 : 제168회 임시회 (2017. 9. 5.)
- > 질문요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울산 복구청의 계획 및 복구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울산 복구청의 계획 및 복구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Q.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A.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로,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852개소이고,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이며,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전환대상입니다.

단계별 추진시기는 1단계 전환대상은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 2단계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18년 상반기에, 3단계는 2018년 중 고용노동부가 계획 중인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별도의 전환기준에 따라 추진됩니다. 금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증가 및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 전환 기준·방안 마련 및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며, 모범사례 확산 및 기업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의 직무를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우리 구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에 있어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전환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간제 특별실태 조사를 통한 직무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직무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전환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고용 안정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증가, 민간의 일자리 감소, 형평성 논란 등 우려 요소가 있어 전환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합리적인 전환결정을 위해 전환심의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 업무의 선점뿐 아니라 전환방식, 전환인원 선정, 시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어,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별도로 근로자 대표 및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규직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용역근로자는 시설물 청소원 37명, CCTV 관제원 20명, 청사 경비원 2명, 청사 안내원 1명으로 총 60명이고, 파견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직무분석 및 전환심의회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환결정을 하고, 이후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의 지침 및 우리 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환심의회위원회는 6 내지 10명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2분의 1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등 노동관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현재 71개의 기간제 근로자 종사 직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직무분석을 마치는대로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는 전환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자가 복구체육회로 결정되었는데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A. 쇠부리체육센터는 지난 6월 23일 제10차 본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초과 문제로 인해 직영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의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구)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비정부 비영리 체육단체이며, 체육운동을 범 구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 구 및 국위선양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북구체육회는 울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제5조, 제36조에 따라 시 체육회의 지회이며, 체육회 회장은 통합체육회 권고안에서 구청장을 추대토록 하여, 그 회장직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위촉된 사항입니다.

북구체육회 뿐만 아니라 울산을 제외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50개 구군 체육회장 선임 현황을 조사해본 바 서울 노원구, 강북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49개 체육회장이 단체장으로 위촉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단체장이 체육회장인 49개 지자체의 체육센터 위탁 운영사례도 조사해 본 결과 직영운영 6개, 시설공단 위탁운영 22개, 민간위탁 3개 외 11개의 지자체는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탁기관 모집시 북구청장이 회장인 북구체육회의 신청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구 관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시 체육회가 주관 하는 각종 종합대회 참가,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및 강동해변 몽돌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확보

등 체육관련 인적 네트워크 및 경험이 풍부한 단체로, 쇠브리체육센터 운영 및 구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쇠브리체육센터는 민간위탁 운영기로 하였으나,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생활체육센터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의거 그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용에 관하여 절차 및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용료 또한 조례에 의하며 구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초기이니 만큼 직영으로 운영 중인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생활체육센터와 같이 안정적인 시설운영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수인계,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협약을 위해,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시 우려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사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 근로자 관리,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비의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안) 마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것이며, 운영 또한 지도 감독, 지휘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결의안, **구청질문**, 5분자유발언

- >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 > 질문일시 : 제170회 제2차 임시회 (2017. 11. 20.)
- > 질문요지 : 농소2동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농소2동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Q. 농소2동운동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A. 우리 구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괄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상 우리 구가 포함된 북부대생활권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으로 계획인구가 24만 9천명이며, 그 중 농소2동은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을 비롯한 지역개발로 인해 현재 인구가 3만6천명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인구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구는 주민들의 문화·체육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고 여가선용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6년 8월 지역 구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뒤 동천강변 신천동 67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2억원, 부지면적 26,000㎡ 규모로 농소2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소2운동장의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 12월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시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 중으로 현 부지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비로 경지정리 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고 구획 정리되어 식량생산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매우 높은 우량농지로, 주변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용 가능한 토지가 많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운동장을 조성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없다는 시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10,000㎡ 이상) 해제 대상으로 1차 협의부서인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 관련 부서 협의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 방문협의를 통해 농소2운동장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68회 임시회
 (2017. 9. 5.)

발언 요지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라!

본의원은 2018년 당초예산 편성을 앞두고 박천동 구청장님께 우리 북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정책을 생산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타구로 이사 가는 것을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듯 교육여건은 정주여건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타구로 인구유입이 안되도록 우리 북구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살아있는 북구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사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

등을 보면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된 2007년에는 1억, 2008년 1억5천, 2009년에는 4억, 2010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3억으로 8년 동안 동결입니다. 2010년 당시 구세 결산 징수액이 307억원이고, 2016년 구세 결산 징수액은 657억으로 무려 2배가 늘어났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은 여전히 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울산지역에 있는 타구군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울주군이 27억, 남구가 12억, 동구가 7억5천, 중구와 북구만 3억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보조기준액이 구세의 2퍼센트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인상하여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68회 임시회
 (2017. 9. 5.)

발언 요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공론화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 주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가진 소통과 토론 속에서 올바른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단순히 신고리 5·6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부분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의 토론 속에서 결정되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당장의 경제논리로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모험입니다. 울산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울산단층, 일광단층, 양산단층 등 울산 인근에는 62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 아는데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 100만, 부산 250만, 양산 3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과정에 지진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안정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 다. 핵발전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

저장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2조가 넘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만 2조 7천억원, 폐로비용 2조원, 사고대응비용 58조원 등 60조원이 넘게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스발전소는 가동률 30%대로 절반 이상이 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비용 낭비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다가 안전성, 경제성, 탈원전 정책 결정 등으로 중단된 원전은 92기에 달합니다. 미국은 최근 건설 중인 4기 중 이미 5조 원이 투입된 2기를 경제성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앞서 울산시민들이 올바른 정보 속에서 판단하기를 바라며 공론화 과정에는 반드시 울산과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발언의원 : 윤치용 의원
 > 발언일시 : 제168회 임시회
 (2017. 9. 18.)

발언 요지

주민위한 소신행정, 손해배상 판결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반민주적 결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4일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진장유통조합에서 제소했던 손해배상에 대하여 북구청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중오 국회의원에 대해 청구액의 20%에 해당하는 1억 14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선고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소신행정에 대하여 단체장의 정책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중오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북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소기업상인과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대형마트의 입점 거리제한, 의무휴업일 등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득이 된 행정이었음에도 윤중오 구청장은 퇴임 이후 벌금 1천만 원과 자택마저 가압류 당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2011년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 5천 명당 1개로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에 코스트코마저 허가할 경우 3만 6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불을 보듯 뻔(명약관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코스트코 입점반대 농성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었고, 윤중오 당시 구청장은 상인보호 장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건축 허가를 반려하게 되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윤중오 국회의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결정에 따른 1심 선고 결과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단체장의 사리사욕이 아닌 골목상권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 속에 판단된 정책적 결정과 소신행정이었기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발언의원 : 백현조 의원
> 발언일시 : 제169회 임시회
(2017. 10. 18.)

발언 요지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울산이 이제 정부를 믿고, 우리 원전기술을 믿어 대한민국 원전건설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자율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양보해온 울산 시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이란 미명하에 1조 6천 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공정을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했습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할 것을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저렴하여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세 번째, 일본, 영국,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습

니다. 네 번째, 신고리 5·6호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내진설계는 물론 최악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량의 방사능 외부누출을 막도록 설계된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을 30%에 가까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면 보상 및 매몰비용을 포함해 약 2조 8천 억원에 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될 경우 향후 공사기간동안 예상되는 연인원 7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신고리 5·6호기는 정부를 믿고 지역주민의 합의 하에 자율유치로 신청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울산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이런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울산 시민들의 울부짖는 외침을 무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69회 임시회
(2017. 10. 18.)

발언 요지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안전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맘 흘려 만들어 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스리마일 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았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전력실패 중에 일어난 인재이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일어난 재난사고였습니다. 핵발전소는 누구도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5.8의 지진을 경험한 울산은 결코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단 0.0001%의 위험에 대한 가능성에도 우리는 탈핵정책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하나,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땅위에 핵폭탄’을 올려놓고 우리는 그 옆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국민의 안전에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만일

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울산 시민의 마음을 공약에 담아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약속하며 ‘원전제로인’ ‘탈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하였고, 탈핵시민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 정책협약도 진행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론화위원회는 국민들에게 갈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찬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약을 이행하도록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세계는 탈핵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에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핵발전소에 머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 발언의원 : 백현조
>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발언 요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현재 염포·양정동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염포·양정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토목, 건축 등 물적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덧입힌 문화 콘텐츠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는 도시재생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인공물과 역사적 장소 등을 중심으로 그 곳에 갖는 이야기를 콘텐츠화 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염포동은 지리적, 역사성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해 단절된 지역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소금포 역사관 조성, 콘텐츠 개발, 기록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로 변모한 과정을 담은 복합 문화전시 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정동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변모한 과정을 스토리텔링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상품화 하고,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자동차 테

마거리 조성 등 지역의 상징 거리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사업 계획인 구 양정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생활 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포·양정의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대학 운영, 싱글빙글 오치로드 만들기, 벽화 거리 조성, 제1·2차 안전마을 만들기 준공 등 차근차근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2018년도 완공 예정의 염포운동장 건립 사업도 주민의 여가 생활과 체육 동호인의 취미 활동은 물론, 마땅한 행사 장소가 없던 염포동 주민들이 마음 놓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됨으로써 이 또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염포·양정동이 떠나는 동네가 아닌 찾아오는 동네가 되기를 바라며 거듭된 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 발언의원 : 이상욱 의원
>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발언 요지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믿음과 신뢰로 거듭
나는 북구의회가 되기 바라며**

구청운영을 평가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를 사랑하는 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아쉬움과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회 임원과 선수단 유니폼 구매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매업체 선정과정 및 구매방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타당하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과도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구의회 민중당 소속 의원들의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9월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으로 접한 시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혹을 제기한 어느 한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사자가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된 사

실을 말함으로써, 구청과 공무원들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북구의회 민중당 소속 의원들은 10월 보도자료를 내고,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을 제기해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북구청과 같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북구청 직원들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주민의 민의를 받들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은 구행정의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나 오해를 받을 때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려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숙된 자세로, 진정한 구민의 눈과 귀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잘못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도 부족한 점은 없는지 숙고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는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더욱 발전하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 의원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발언 요지

**포항 지진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교훈입니다. 예고없는 지진이 불러올 엄청난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가져다준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발생 한지 1년 2개월 만에 또 다시 예고 없이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까지 영향을 미친 이번 포항지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재앙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 0.0001%의 가능성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번 지진은 규모 7.5까지 예상 가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23기가 6.5로, 신고리 7.4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되어 있다고 합니다. 7.5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강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울산, 경주, 포항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 가동 중단

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 관한 지질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5개 구군은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과 공공건물, 그리고 학교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진 검사를 실시하고, 지진 대비 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진에 대비한 주민 생명보호와 대피에 필요한 이동경로 확보와 훈련, 지진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주민 생명 보호매뉴얼과 대피소와 이동경로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항상 "주민 생명" 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주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0.)

발언 요지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대안 모색을 시작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고, 지역에 달릴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들을 미리 차근차근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자동차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현대자동차 완성차기업과 부품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과 경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기술의 변화가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시스템의 변화가 향후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의 변화, 완성차와 부품사의 변화, 이를 컨트롤할 정부정책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삶의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부품 등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품들을 제조하는 부품사들 역시 크고 작은 시각변동을 맞이할 것입니다. 전기차로 바뀌면 엔진/배터리, 소음기/배기, 연료계

통 등의 부품들이 불필요해 질 것이고, 이를 생산하던 부품사들 역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주는 3,030억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전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히는 등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2015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3년차를 맞이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자동차산업구조 변화에 방향을 맞추어 북구 관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울산 북구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안 모색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2. 22.)

발언 요지

지역실정에 맞는 노동 -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 충남, 아산, 안산, 고양, 성남,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등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노동권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각 영역별 비정규직 지원사업, 생활임금 도입, 일자리 중간지원조직인 노동권익센터 설치, 감정노동, 청년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일자리정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큰 틀은 같겠지만, 서울의 일자리와 광주의 일자리가 다르듯이 울산은 울산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울산 복구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먼저 일자리와 관련된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연령별, 성별 등 상세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변화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책대상별 통계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사가 밀집해 있는 울산 북구에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이 동반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창조경제과를 확대개편해야 하며, 일자리지원팀의 역할 또한 '공공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수준을 뛰어 넘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안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방도라고 생각하고, 공공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울산 북구청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일자리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017. 1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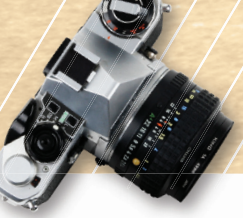
발언 요지

거짓정보로 결정된 상안동모텔 건축허가와 시례소방도로 노선변경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가야하는 기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정보를 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위조하여 결정된 행정은, 그 결정이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고 거짓된 것입니다. 행정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럴 때 공신력도 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서는 주민들과의 사업, 복구의 운영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행정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소3동 상안동 모텔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그 심의 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말하고,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업지역이라는 사실과 바로 앞에 주민

이 거주하는 빌라시설이 있다는 사실 등을 빼고 학원 등에 대한 법적 검토만 한 사실 등은 잘못된 심의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건축심의와 차이가 있는 이유입니다. 상안동 시례소방도로 노선변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조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노선에 문제가 없고, 변경된 노선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마치 다수의 주민이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여 변경한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그냥 덮고 가거나 방치하면 다음에 또 그 잘못을 하게 되고, 쌓이고 쌓이면 적폐가 됩니다. 우리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상안동 모텔 건축허가와 시례소방도로 노선변경입니다. 단순한 건축과 도로 노선의 변경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주민간의 갈등이 만들어 졌으며,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을의 공동체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원위치로 되돌려 주민과의 소통과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7. 7. 6.)



평생학습 리마인드 콘서트 (2017. 7. 7.)



신명중대 군 장병 위문 방문 (2017. 7. 11.)



강동 정자해변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7. 7. 11.)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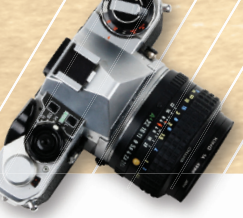
복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사수 (2017. 7. 13.)



복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 (2017. 7. 13.)



복구 미래비전 포럼 (2017. 7. 14.)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 (2017. 7. 14.)



2017 투게더 콘서트 (2017. 7. 14.)



강동산하해변 물놀이장 개장식 (2017. 7. 15.)



달천운동장 물놀이장 개장식 (2017. 7. 15.)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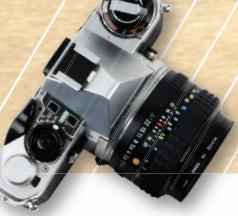
정선 선진지 견학 (2017. 7. 17.)



달곡, 제전마을 박물관 특별전 개막식 (2017. 7. 20.)



제회 북구청장배 항공대회 (2017. 7. 25.)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경 **염포운동장 조성공사 기공식**
염포운동장 조성공사 기공식 (2017. 7. 28.)



경 **강동·농소 청소지위소 이전 개소식**
2017. 8. 25. (목)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 조성 축하연 (2017. 8. 30.)



매곡도서관 개관식 (2017. 9. 1.)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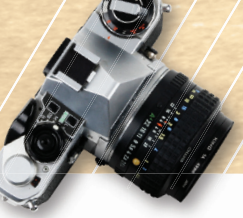
시민생활체육대축전 북구선수단 발대식 (2017. 9. 7.)



자동차 부품 조립 자원봉사 활동 (2017. 9. 14.)



오토밸리로 준공식 (2017. 9. 22.)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사회복지시설, 기관 직원 한마음대회 (2017. 9. 23.)



옥동~농소2도로 개설공사 준공식 (2017. 9. 27.)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방문 (2017. 9. 27.)



제17회 주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2017. 10. 15.)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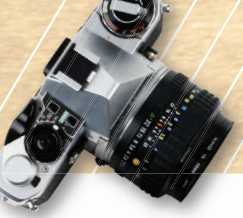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방문 (2017. 10. 18.)



문화의 달 행사 (2017. 10. 21.)



제4회 울산 북구 책잔치 (2017. 10. 21.)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동천 독방길 건강달리기 대회 (2017. 10. 22.)



노사화합 한마음 음악회 (2017. 10. 27.)



강동사랑길 걷기 축제 (2017. 10. 28.)



북구청장배 축구대회 (2017. 10. 29.)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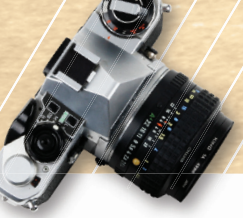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2017. 11. 1.)



외부리체육센터 개관 기념식 (2017. 11. 15.)



제3대학 제10기 졸업식 (2017. 11. 28.)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2017. 12. 1.)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2017. 12. 4.)



현대제철 김장 나누기 행사 (2017. 12. 8.)



북구 참전유공자 합동 위안행사 (2017. 12. 15.)

2017년 하반기 포토의정



염포119안전센터 개청식 (2017. 12. 19.)



북구노인복지관 행복식당 배식 봉사활동 (2017. 12. 21.)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2017. 12. 22.)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10:00 ~ 17:00 (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5층)에서 접수
 전화: 241-8982 팩스: 241-8989

비례대표	효문·양정·염포동	농소2·농소3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사무실 : 241-8900 010-3446-2002	부의장실 : 241-8910 010-8610-4748	사무실 : 241-8930 010-2299-7321	사무실 : 241-8920 010-6587-1287	사무실 : 241-8960 010-5535-2362	의장실 : 241-8950 010-2833-1929	사무실 : 241-8940 010-3801-8364

※ 의회 방문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